

일상 의료사고 케이스 4 개

일상 의료사고 케이스 1: 가정용 칼에 의한 손가락 절단사고

— 2025 년 5 월 서울 마포구 한 가정 주방에서 발생한 요리 중 절단사고 사례 기준

(응급의학과 전문의 의견 및 소방청 구급대 현장 대응 기록 기반)

1. 사고 개요

사고 유형: 요리 중 잘못된 칼질로 인한 손가락 부분 절단

피해 현황: 30 대 주부 검지 말단부 절단, 응급실 이송 후 수지접합 수술

세부 내용:

- 일시·장소: 5 월 20 일 오후 6 시, 서울 마포구 아파트 주방
- 사고 유형: 야채 썰기 중 칼날에 검지 말단부 2cm 절단
- 환자 상태: 35 세 여성, 대량 출혈로 쇼크 위험, 절단된 손가락 조직 보존 상태 양호

2. 사고 경위 및 특징

- 저녁 식사 준비 중 양파 썰기 작업에서 칼날 미끄러짐으로 발생
- 평소보다 서둘러 요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
- 사고 직후 당황하여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출혈 악화
- 가족이 119 신고하고 절단 부위 응급처치 시행
- 절단된 손가락 조직을 얼음에 직접 접촉시켜 조직 손상 위험 발생

3. 초기 대응 절차

- 사고 인지 (당사자·가족): 출혈 확인, 119 신고, 지혈 시도
- 응급 처치 (가족·119 상황실): 전화 지도 하 압박지혈, 절단 부위 보존
- 현장 출동 (119 구급대): 전문 응급처치, 수지접합 가능 병원 이송

4. 현장 구조 및 응급 대응

깨끗한 수건으로 압박지혈 실시, 손을 심장보다 높게 거상

절단된 손가락을 습윤 거즈에 싸서 비닐봉지에 밀봉 후 얼음물에 보관

- **119 구급대:** 현장 응급처치, 생체징후 안정화, 병원 이송
- **응급실:** 지혈 처치, 파상풍 예방접종, 수술 준비
- **성형외과:** 수지접합 수술, 혈관·신경 재문합술
- **가족:** 초기 응급처치, 절단 부위 보존, 심리적 지지
- **119 상황실:** 전화 응급처치 지도, 구급차 출동 지시

일상 의료사고 케이스 2: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

— 2025 년 7 월 대구광역시 건설현장 근로자 열사병 집단 발생 사례 기준

(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조사 및 의료진 치료 기록 기반)

1. 사고 개요

사고 유형: 폭염 환경에서의 장시간 야외작업으로 인한 중증 열사병

피해 현황: 건설근로자 3 명 열사병, 1 명 중환자실 치료

세부 내용:

- **일시·장소:** 2025 년 7 월 15 일 오후 2 시, 대구 수성구 건설현장
- **기상 조건:** 기온 38°C, 습도 80%, 체감온도 42°C
- **환자 정보:** 40~50 대 남성 근로자 3 명, 탈수 및 고체온증

2. 사고 경위 및 특징

- 폭염경보 발령 중에도 공사 일정상 야외작업 지속
-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3 시간 연속 작업 진행
- 첫 번째 환자 의식 잃고 쓰러진 후 연쇄적으로 2 명 추가 발생
- 그늘막과 휴식 공간 부족으로 적절한 체온 조절 불가
- 동료 근로자들이 즉시 그늘로 이동시키고 119 신고

3. 초기 대응 절차

- 사고 인지 (동료 근로자·현장소장): 의식 잃은 환자 발견, 즉시 작업 중단
- 응급 처치 (현장 관리자·동료): 그늘로 이동, 옷 풀어주기, 수분 공급
- 전문 대응 (119 구급대·병원): 체온 하강 처치, 링거 투여, 집중치료

4. 현장 응급처치 및 병원 치료

시원한 그늘로 즉시 이동,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물로 몸 적시기

의식 있는 환자에게는 시원한 물과 이온음료 섭취 지원

- 현장 관리자: 작업 중단, 응급처치 지시, 119 신고
- 동료 근로자: 환자 그늘 이동, 체온 하강 응급처치
- 119 구급대: 정맥수액 투여, 체온 측정, 병원 이송
- 응급실: 집중 냉각치료, 전해질 보정, 상태 모니터링
- 산업안전보건공단: 작업환경 조사, 안전수칙 위반 점검

일상 의료사고 유사 사례: 부산 건설현장 열사병 사망사고

– 2024 년 7 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또 다른 열사병 사망 사례

앞서 제공드린 열사병 케이스와 매우 유사한 사례를 찾았습니다. 2024 년 7 월 31 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건설현장에서 60 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.

1. 사고 개요

사고유형: 폭염 환경에서의 건설작업 중 열사병 발생

피해현황: 60 대 남성 근로자 1 명 사망, 사고 당시 체온 40 도 기록

세부 내용:

- 일시·장소: 2024 년 7 월 30 일 오후 2 시 50 분경, 부산 연제구 연산동 건설현장
- 사고 유형: 건설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의식 잃고 쓰러짐
- 환자 상태: 60 대 남성, 체온 40 도,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사망

2. 사고 경위 및 특징

오후 2 시 50 분경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야외 건설작업 진행

-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동료들이 119 신고
-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, 체온이 40 도까지 상승
-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열사병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
- 당일 부산 지역 최고 기온은 35 도를 넘나드는 폭염 상황

3. 초기 대응 및 특징

이 사례는 앞서 대구 건설현장 열사병 사고와 여러 공통점을 보입니다:

- 발생 시간: 모두 오후 2-3 시 가장 더운 시간대
- 작업 환경: 야외 건설현장에서의 중노동
- 연령대: 60 대 고령 근로자
- 결과: 체온 40 도 이상 상승 후 사망
- 대응: 동료의 119 신고 → 병원 이송 → 사망 확인

이 사례는 건설현장에서의 열사병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, 고용노동부에서도 2022 년 7 월 건설현장에 "열사병 위험경보"를 발령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.

특히 이 두 사례 모두 **중대재해처벌법**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,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.

일상 의료사고 케이스 3: 음식 알레르기로 인한 анафилакти시스 쇼크

— 2025 년 9 월 부산 해운대구 음식점에서 발생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사례 기준

(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진료기록 및 응급실 대응 사례 기반)

1. 사고 개요

사고 유형: 새우 알레르기 환자의 해산물 섭취로 인한 급성 анафилакти시스

피해 현황: 20 대 여성 의식 잃고 호흡곤란, 에피네프린 투여 후 회복

세부 내용:

- **일시·장소:** 2025 년 9 월 10 일 오후 7 시, 부산 해운대구 해산물 전문점
- **원인 물질:** 새우 알레르기 (본인도 모르던 알레르기)
- **증상 발현:** 섭취 5 분 후 전신 두드러기, 10 분 후 호흡곤란과 의식 저하

2. 사고 경위 및 특징

- 회식 자리에서 새우가 들어간 요리 섭취 후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
- 평소 새우 알레르기 병력을 모르고 있던 상태
- 처음엔 가벼운 가려움으로 시작했으나 5 분 만에 전신 반응으로 악화
- 동반자들이 즉시 119 신고하고 의식을 잃기 전까지 깨어있도록 지원
- 음식점에서 즉시 해당 음식 섭취 중단하고 원인 파악

3. 초기 대응 절차

- **증상 인지 (본인·동반자):**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증상 확인, 알레르기 의심
- **응급 신고 (동반자·음식점):** 119 신고, 원인 음식 섭취 중단
- **전문 처치 (119 구급대):** 에피네프린 투여, 기도 확보, 응급실 이송

4. 응급처치 및 집중치료

편평한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거상

에피네프린 0.3mg 허벅지 근육주사, 산소 공급 및 수액 치료

- **동반자:** 환자 안정, 의식 유지 도움, 원인 파악
- **음식점 직원:** 119 신고 지원, 섭취 음식 정보 제공
- **119 구급대:** 에피네프린 투여, 기도관리, 생체징후 안정화
- **응급실:** 항히스타민제 투여, 스테로이드 치료, 관찰
- **알레르기내과:** 알레르기 원인 검사, 재발 방지 교육

일상 의료사고 케이스 4: 계단 낙상으로 인한 머리 외상

— 2025 년 10 월 인천 계양구 지하철역 계단 낙상사고 사례 기준

(신경외과 전문의 진료기록 및 지하철공사 안전팀 대응 사례 기반)

1. 사고 개요

사고 유형: 지하철역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 뒤쪽 강타 후 뇌진탕

피해 현황: 60 대 남성 의식 잃고 두피 열상, CT 검사 후 뇌출혈 확인

세부 내용:

- **일시·장소:** 2025 년 10 월 3 일 오전 9 시, 인천 계양구 계양역 하행 계단
- **사고 유형:** 계단 미끄러짐으로 인한 후두부 강타, 두피 열상 및 뇌진탕
- **환자 상태:** 65 세 남성, 일시적 의식 잃음, 두피 5cm 열상, 경미한 뇌출혈

2. 사고 경위 및 특징

- 비 온 뒤 젖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뒤로 넘어짐
- 계단 모서리에 머리 뒤쪽이 직접 충격을 받으며 의식 잃음
- 목격자들이 즉시 119 신고하고 머리와 목 움직이지 않게 고정
- 2 분 후 의식 회복했으나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호소
- 지하철 역무원이 응급처치 키트로 두피 열상 압박지혈

3. 초기 대응 절차

- **사고 목격 (승객·역무원):** 낙상 환자 발견, 119 신고, 목과 머리 고정
- **응급 처치 (역무원·목격자):** 의식 확인, 출혈 부위 압박지혈, 안정
- **전문 치료 (119 구급대):** 경추 고정, 두피 봉합, 뇌 CT 검사

4. 응급처치 및 신경외과 치료

목과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의식 상태 지속 확인

두피 열상 부위 깨끗한 거즈로 압박지혈, 지속적 생체징후 모니터링

- **목격 승객:** 환자 발견, 119 신고, 초기 안정화
- **지하철 역무원:** 응급처치, 현장 통제, 구급대 유도
- **119 구급대:** 경추보호대 적용, 들것 이송, 병원 이송
- **응급실:** 두피 봉합, 뇌 CT 촬영, 신경학적 검사
- **신경외과:** 뇌출혈 치료, 뇌압 모니터링, 재활 계획